이슬람의 지하드

JIHĀD IN ISLAM

사이드 아불 아알라 마우두디 著

전주 이슬람 센타
Chon-Ju Islam Center

٨٠- مسؤولية الأمة الإسلامية ومهمتها

www.pathagar.com

이슬람의 지하드

사우드 아불 아알라 마우두디 著

전주 이슬람 센타

www.pathagar.com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www.pathagar.com

차 례

머 리 말 5

이슬람의 지하드 9

성전(聖戰)에 대한 오해의 원인 11
지하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12
'하나님을 위하여' — 필수조건 14

이슬람의 혁명 강령 18

이슬람 혁명 강령의 특징 21
지하드의 필요성과 목적 23

세계 혁명 27

'공격'과 '방어'는 부적합한 말이다. 29

짐니스(불신자들)의 지위 31
제국주의라는 비난 33

www.pathagar.com

머 릿 말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

이책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한국에서 이슬람에 대한 지식이 널리 보급되지 않아 이슬람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료가 불충분하여 항상 안타갑게 여기고 무슬림 형제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읽고 이해할수 있는 자료의 필요를 절감하든차, 알라의 도움으로 86년 1월 쿠웨이트 종교성 선교국장 압둘 아지즈 알—누리 형제와 이슬람 월드 커미트 사무총장 압둘라 S, 알—아티키 형제 일행이 전주 이슬람 센타를 방문, 싸다까를 하여 그 일부로 이 책을 발간, 빛을 보게 되었읍니다.

우선 손쉽고 작은 책을 발간하게 되었으며 또 기회가 주어 진다면 더 좋은 책을 계속 발간하도록 노력하겠으니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고하신 알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글 번역을 하여 주신 형제님·교열과 교정을 하여 주신 빌랄 이 병선 형제님·출판을 맡아 수고하여 주신 한국 컴퓨터 인쇄(주)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 주 이 슬 람 센 타

압둘라쉬드 염 보 섭

www.pathagar.com

www.pathagar.com

Preface

In the name of God, most merciful, most gracious. The peace and blessing of Allah be upon those who will read this book!

Unfortunately the Islamic knowledge is not so widely spread in Korea that those who want to learn more of Islam cannot have the Islamic data available enough to increase their understanding of Islamic. So we have appreciated the necessity of the Islamic literatures.

In the meantime, sadaqah that Abdullah S. Al-Ateeqi, Islamic world committee C.G.and Nadr Abdul Aziz Al-Noori, director of Islamic affairs ministry of Waqaf, gave to the Chon Ju Islam Center during their stay in Korea made it possible to publish this book, 'Jihad in Islam' by the mercy of Allah

We heartily thank Allah for His favor.

If another opportunity is offered by Allah, we will publish more Islamic books, In-sha-Allah. We hope that this small book will help the reader to serve Allah with true faith.

Your encouragement will be greatly acknowledged.

www.pathagar.com

Finally we deeply thank the brother who translated this book, brother Bilal, Yi Byung Sun, who undertook the correction & revision and those to whom it may concern in Korea computer printing Co., Ltd.

Abdul Rasheed Youm, Bo Sub in Chon-Ju Islam Center

www.pathagar.com

이슬람의 지하드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

(이 강연은 1939년 4월 13일 이까발 날에 라호르의 시청에서 있었다.)

'지하드'라는 말은 보통 성전(聖戰)으로 번역되는데, 이제 이말은 그렇게 해석된지 오래여서 '광신'(狂神)과 동의어가 되어 버렸을 정도입니다. '지하드'라는 말을 들으면, 칼을 빼 휘두르며 만나는 곳마다 이교도들을 공격하여 칼날을 세우고 깔리마를 외우라고 강요하는 수염이 야만적이고 눈이 이글거리는 종교적 광신자(狂神者) 무리의 행군 장면이 떠 오름니다. 화가들은 명인의 필치로 이런 그림을 그리고 그림 아래 굵은 글씨로 이런 말을 써 넣었읍니다:

'이 민족의 역사는 유혈(流血)의 이야기다.'

아이로니칼한 것은 이 화가들이 다름아닌, 수세기 동안 잇따라 지극히 성스럽지 못한 전쟁을 벌여온, 우리들의 은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자신은 강도 그림을 선사하고 있읍니다. 이 그림의 강도들은 온갖 치명적인 무기로 완전 무장하고 세계를 덮쳐 새로운 상품 시장과 원료 자원, 식민지화를 위한 무점유지(無占有地)와 귀금속을 내는 광산을 포획하기 위해 이를 약탈하여 왔읍니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타오르는 자신들의 탐욕의 불길을 지필 연료를 획득하였읍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과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 싸웠읍니다. 저들에게는 그것이 한 나라를 침략하는 충분한 구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광산지역이 있거나 땅이 대풍작을 이루거나 거기서 석유가 발견되었거나 이익이 많이 남는 상품 시장으로 개척할 수 있거나 혹은 자기네 잉여 인구를 회생시키기로 작정한 자들의 땅에 정착 시

www.pathagar.com

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구실이 없으면 저들은 어떤 나라가 자기네들이 이미 점령한 나라나 점령하기로 계획한 나라로 가는 도중에 있을 경우, 그것을 중대한 범죄로 간주합니다. 우리가 한 일은 모두 이제 지나버린 과거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행위는 세계가 밤낮 목격하고 있는 당면 문제인 것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이 흑성의 그 어느 곳이 저들의 성스럽지 못한 전쟁이 몰고 온 대학살을 모면하였읍니까? 하지만 우리 그림을 유혈이 낭자하고 어둡게 그려서 자기 자신들의 그림을 흐릿하게 하고 완전히 보이지 않게 한 저들의 기술은 칭찬할만합니다.

우리 자신의 단순함 역시 놀라울 정도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를 그린 이 그림을 보고 우리는 놀란 나머지 캔버스를 뒤돌아 보거나 화가의 얼굴 모습을 알아보려고도 생각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전쟁이니, 학살이니 하는 것을 저희가 알께 뭡니까. 저희는 탁발 수도사나 종교의 성직자 같은 평화주의적인 전도자들 입니다. 어떤 종교적 신념을 논박하고 사람들을 다른 신앙으로 개종 시키는것, 그것이야 말로 우리 정열의 전부입니다. 군도(軍刀)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읍니까!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범죄 사실만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저희를 공격할 때마다 자기 방어를 위해 그를 공격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론 그것 마저도 단념했읍니다. 칼로 대전(對戰)한 십자군이 귀하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폐지되었으니 말입니다. 지금의 '지하드'는 말과 글로 싸우는 것을 가리킬 뿐입니다. 대포를 발사하고 총을 쏘는 것은 귀 정부의 특권이요 말로 싸우고 글로 할퀴는 것은 저희의 즐거움입니다.

www.pathagar.com

어쨌거나 이것은 정치적 책략(策畧)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순전히 학문적인 견지에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의 피빛 성격을 비단 비무슬림 뿐만 아니라 무슬림도 이해하기 어렵게 한 제원인을 분석해 보면 주요한 근본적 오해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째 오해는 이슬람을 상투적 의미의 '종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둘째 오해는 무슬림들을 기술적 의미의 '민족'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 오해가 '지하드'의 개념과 섞였을 뿐만 아니라 이슬람의 전체상(全體像)을 바꾸어 버리고 무슬림 민족의 입장을 전적으로 왜곡(歪曲)하였읍니다.

상투적인 전문 용어로서의 '종교'는 몇가지의 신념과 기도와 의식의 뒤범벅된 것을 뜻하는데 불과합니다. 이것이 종교가 뜻하는 바라고 한다면 종교는 사사로운 일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념이든지 자진해서 받아들이고 어떤 신(神)이든지 여러분의 양심이 받아들일 각오가 된 신(神)을 자진해서 숭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종교의 정열에 넘치는 열렬한 귀의자라면 가서 온 세계에 그것을 전파하고 타 종교의 주창자들과 함께 열변을 토해 보십시요. 여러분이 칼을 잡아야 할 이유가 있읍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을 죽여서 여러분의 신앙으로 개종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이슬람을 상투적 의미의 종교로 생각하고 이슬람이 사실 상투적인 유형의 종교라고 한다면 '지하드'의 필요성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민족'이라는 말은 공유된 근본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독립된 실체로 결합된 동질적인 사람들의 집단을 뜻하는 데 불과합니다. 민족이라는 말의 이런 정의에 따라 민족을 이루는 사람들의 집단은 두가지 상황하에서 무장 봉기를 하거나 할 수 있읍니다 : 즉 어떤 다른 집

www.pathagar.com

단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합법적 권리를 박탈할 작정으로 공격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고자 공격에 착수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를 말합니다. 첫째 경우에 무장하는 것이 (일부 성자들은 자기 방어를 위한 무장조차 죄라고 단언하지만) 도덕적으로 정당화됨은 반박의 여지가 없읍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합법적 권리를 빼앗을 목적으로 무장 공격하는 것은 몇몇 독재자들 말고는 그 누구도 정당화할 수 없읍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대제국의 정치가들 조차도 감히 이러한 노선(路線)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지하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므로 이슬람이 '종교'의 하나이고 무슬림들이 '민족'의 하나라고 한다면 '지하드'(이 때문에 지하드에는 이슬람의 모든 예배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예배가 갖는 위엄이 부여되어 왔읍니다)는 무용(無用)한 말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슬람은 한 종교의 명칭이 아니며 무슬림은 한 민족의 칭호가 아닙니다. 실제에 있어서 이슬람은 전 세계의 사회 질서를 바꾸어 자기 자신의 강령과 이상에 따라서 그것을 재건하려고 하는 혁명 이데올로기요 프로그램입니다. '무슬림'이란 자신의 혁명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이슬람이 조직한 국제 혁명당(國際 革命黨)의 칭호입니다. 그리고 '지하드'란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슬람 당(黨)이 바치는 혁명 투쟁과 최선의 노력을 가리킵니다.

여타의 모든 혁명 이데올르기와 마찬가지로, 이슬람은 현용 어휘의 사용을 피하고 자기 자신의 전문 용어를 채택하여 자신의 혁명 이상이 보통의 이상들과 구별될 수 있게 합니다. '지하드'라는 말은 이슬람의 이러한 특수 전문 용어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의도적으로 '하르브'라는 단어와 전쟁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아랍어 단어들을 배척하고 '투쟁'과 동

www.pathagar.com

의어인 '지하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읍니다. 함축된 의미는 그 보다 힘차고 광범위하지만 말입니다. '지하드'라는 말에 가장 가까우면서 정확한 의미를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읍니다 :

'어떤 대의 명분을 증진 시키는 데 자기 최선의 노력을 바치는 것'.

문제는 어째서 오래된 동의어를 모두 버리고 이러한 새로운 단어의 사용을 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다름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말이 개인적 혹은 민족적(국가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민족간이나 국가간에 벌어지는 투쟁을 대신하여 쓰였고 아직도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투쟁 배후의 원동력은 이데올로기적 선입견이나 어떤 원칙에 대한 지지가 전혀 없는 개인적 혹은 집단적 목적입니다. 이슬람의 전쟁은 이런 범주에 들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슬람이 '전쟁'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계속 피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이 혹은 저 민족의 대의명분을 증진하는 일에 기득 이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지상에서의 이 혹은 저 국가의 패권은 이슬람과 무관한 일입니다. 이슬람의 관심은 오직 인류의 복지일 뿐입니다. 이슬람은 인류의 복지를 위한 개혁을 실행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관점과 실천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슬람은 이슬람의 이데올로기와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지상의 모든 국가와 정부를 파괴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 혹은 그 나라를 지배하는 민족과는 무관하게 말입니다. 이슬람의 목적은 어느 민족이 이슬람의 기수의 역활을 맡든 혹은 이데올로기적인 이슬람 국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느 민족의 지배력이 약화되든 이에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이데올로기와 프로그램에 입각하여 국가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지구를—그것도 단지 일부분이 아니라 이 혹성 전체를—요구합니다. 지구에 대한 주권을 한 민족이나 여러 민족으로부터 빼앗아서 한 특별한 민족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그 이데올로기와 복지 프로그램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온 인류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인 '이슬람'의 혜택을 받아야 하기 때

www.pathagar.com

문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슬람은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코자 하는 바, 이들 모든 역량을 사용하기 위한 복합적 조건이 '지하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나 글을 통하여 사람들의 견해를 변화시키고 사람들 사이에서 의식의 혁명을 일으키는 것도 일종의 '지하드'입니다. 총칼의 힘으로 압제적인 낡은 사회 체제를 개조하여 새롭고 정의로운 생활 질서를 세우는 것 역시 '지하드'이며 이를 위해 재화(財貨)를 소비하고 육체적으로 노력하는 것 또한 '지하드'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필수조건

하지만 이슬람의 '지하드'는 단순한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투쟁'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것이 이슬람에서의 지하드의 필수조건입니다. 이러한 표현 역시 본인이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이슬람의 특수 전문용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문자적 의미는 '하나님의 길에서'입니다. 바로 이런 식의 번역이 사람들을 오도(誤導)하여 하나님의 길에서의 '지하드'가 다른 사람들을 이슬람의 신앙으로 억지 개종 시킬 것을 요구하였다고 믿게 하였읍니다. 왜냐하면 일부 지식인들이 '하나님의 길에서'라는 표현을 다름 아닌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간주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이슬람의 전문용어로서 그보다 넓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인류의 공동 복지를 위해 떠 맡은 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데만 관심을 두는 고로 관리가 현 세상에 기득 이권을 가지지 않는 일은 모두 이슬람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일례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물질적 혹은 무형적 이익을 얻으리라 기대하여 무엇인가를 자선으로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바람이라면 이

www.pathagar.com

런 자선 행위는 '하나님의 길에서' 한 것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길에서'라는 용어는, 철저히 진실하게 이기적인 목적을 도모하려는 생각없이 떠맡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단이며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우주의 창조주의 은총을 입는 것임을 조건으로 하여 실행하는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단서를 '지하드'에 붙였읍니다. 그 엄밀한 의미는 한 개인이나 집단이 생활 체제에 혁명을 일으켜 이슬람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새로운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일어날 경우 그 대의 명분을 위해 희생을 바치고 헌신을 하되, 이기적인 동기를 의중(意中)에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황제를 축출하고 빈 보좌를 차지하는것 즉 가이사가 되어 다른 가이사를 대체하는 것이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투쟁의 목적에는 부나 재산, 명성과 갈채, 사사로운 명예나 승진을 얻는 것과 같은 이기적인 동기의 흔적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모든 희생과 노력은 한가지 유일한 목적 즉 인류 가운데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일에 경주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보상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 꾸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싸우나 믿지 않는 자들은 따구뜨(악마)의 길에서 싸우느니라."(4 : 76)

따구뜨라는 말은 '한계를 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뚜기안'(홍수)에서 파생합니다. 강물이 경계를 넘으면 '홍수가 일어 났다'고 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법적인 한계를 모두 넘어서 사람들의 주(主)의 지위를 차지하거나 자기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빼앗으려고 애쓸 때, 이것을 일러 '따구뜨의 길에서 싸운다'고 말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길에서 싸우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싸우는 자의 목적은

www.pathagar.com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그것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성 꾸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

"세상에서 위세를 부리고자 하지 않으며 싸움을 일으키고 싶어하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서 존귀함을 주리라. 내세에서의 성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느니라."(28 : 83)

예언자의 전승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성 예언자(그분에게 평화가 있기를)에게 이렇게 여쭈었읍니다. 알라를 위하여 싸운다 함은 무엇을 뜻하나이까? 한 사람은 재산을 얻기 위해 싸우나이다. 또 한 사람은 용맹스럽다는 명성을 얻기 위해 싸우나이다. 세번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싸우거나 나라의 명예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싸우나이다. 이사람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자이오니이까? 성 예언자(그분에게 평화가 있기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읍니다. '아무도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함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는 자만이 주를 위해 싸우는 것이니라.'

또 한 전승은 이렇게 전하고 있읍니다 : '만약 싸움에 임한 사람이 그 싸움에서 자기 낙타를 맬 끈을 얻으려는 욕심을 마음에 품는다면 저가 받을 보상이 없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의를 얻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들만을 인정하시며 행위자는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목적에 봉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슬람적 견지에서 '하나님의 길에서'라는 조건은 '지하드'와 관련하여 극히 중요합니다. 단순한 투쟁은 세상의 모든 생물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각자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무슬림'이라고 하는 저 혁명당의 혁명 강령 중에서 극히 중요하다기 보다는 근본적인 이상은 세상의 악한 세력에 대한 싸움에 몸과 영혼의 모든 힘,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세력을

www.pathagar.com

멸절 시키고 나서 그 후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악과 불순종이 일소되고 하나님의 법이 세상에 시행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하드'의 의미와 '하나님의 길에서'라는 단서의 의의를 간단히 설명했으니, 이슬람이 지지하는 혁명 강령을 간단히 설명하여 지하드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지하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해 볼까 합니다.

www.pathagar.com

이슬람의 혁명 강령

이슬람의 혁명 강령은 한 마디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오 사람들아 !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숭배하라."(2 : 21)

이슬람의 부름은 노동자, 지주, 농부 혹은 실업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이슬람이 말하는 대상은 인간으로서의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반신 반인(半神 半人)이라는 자만심을 품고 있다면 그것을 없애 버리십시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동료 인간에게 숭배와 무조건 복종을 요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한 분이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증언해야 하며 그분께 헌신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모두는 동등한 수준에 있어야 합니다.

> "우리와 너희 사이에서 동등한 말로 올지니 이 말은 곧 너희가 알라 외에 아무도 숭배하지 아니하며 저희중 누구도 알라외에 다른자를 주(主)로 여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 그러나 저들이 돌아선다면 이렇게 말할지니라 : 저희가 하나님께 복종하였음을 증언하나이다."(3 : 64)

이것은 완전한 세계적 혁명을 일으키라는 부름이었읍니다. 그것은 큰 소리로 '주권은 알라외에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였읍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정한, 인간의 지배자가 되어 자기의 자유 의사와 권위를 근거로 하여 명령과 금지를 발할 권리가 없읍니다. 인간의 개인적인 권위를 명령과 금지의 근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 개인을 하나님의 권력과 권위의 공유자로 인정하는 것에 상당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세계의 모든 악의 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올바른 영(spirit)을 불어 넣으시고 인생의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읍니다. 인간이 이 바른 길을

www.pathagar.com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잊고 그 결과로서 자기 자신의 참 가치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필연적으로 몇몇 사람, 왕조 혹은 계층이 신권(神權)을 주장하도록 조장하였고 저들은 자신들의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인류 전체를 자기 피조물의 지위로 전락시켰읍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자아를 잊음으로 해서 인류의 일부는 세상의 권세있는 자들의 신성(神性)을 증언(선언)하게 됩니다. 이들은 권세있는 자들의 명령 발동권과 노예처럼 몸을 바쳐 이러한 명령을 수행해야할 자신들의 의무를 묵묵히 받아 들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폭정과 갈등과 불법적인 착취의 근본 원인이며 이슬람이 공격하라고 명하는 최초의 목표입니다. 이슬람은 다음과 같이 낭랑하게 울려퍼지는 부름을 발합니다 :

"그리고 한계를 범하며 땅에서 해악을 일으키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의 명령에 복종하지 말라."(26 : 151—152)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여금 우리를 기억함이 없게 하였으며, 자기의 저속한 욕망을 좇으며, 하는 일이 모든(법적) 한계를 넘는 자들에게 복종하지 말라."(18 : 28)

"정녕코 알라의 저주가 행악자들 위에 임하나니, 저들은 알라의 길을 가지 못하게(사람들을) 훼방하며 그 길을 굽게 하려고 하느니라."(11 : 18—19)

이슬람은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

"저들 가운데 있는 서로 다른 많은 주(主)가 더 나은가 아니면 한 분이신 전능하신 알라께서 더 나은가."(12 : 39)

한분이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이 하찮은 사이비 신(神)들의 굴레로 부터 해방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들 사

www.pathagar.com

이비 신(神)이 여러분을 지배할 것이며 필연적으로 싸움을 야기할 것입니다.

"진실로 왕들은 어떤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를 빼앗고 그 백성중 가장 존귀한 자를 가장 비천한 자로 전락시키느니라."(27 : 34)

"그리고 저가 권력을 잡으면 땅에 싸움을 일으키느니라. 저는 들을 약탈하고 일족을 멸절시키나니 하나님께서는 싸움을 승인하지 아니하시느니라."(2 : 35)

지금은 상론할 계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간단히 설명하고자 하니 여러분께서는 한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만 헌신한다고 증언하라는 이슬람의 부름이 타 종교 교리의 초대와 같이 상투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교리를 따르라는 초대가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그것은 사회 혁명 운동에 참여하라는 초대였읍니다. 그 공격의 주력은 종교계의 성직자들, 정계(政界)의 왕, 귀족, 지배층, 경제 생활 분야의 고리대금업자, 지주, 독점가들과 같이 인류 일반을 자기들 노예의 지위로 전락시킨 계층들을 직공(直攻)하였읍니다. 어떤 곳에서는 저들이 알라 말고 자기들이 주(主)라고 공언 하였읍니다. 저들은 사람들의 복종과 헌신을, 계급 차별에 입각한 세습 권리나 특권으로 요구하였으며 뻔뻔스럽게도 이렇게 선언하였읍니다 :

"나외에 누가 너희들의 신이냐."(28 : 38)

"나는 너희 최고의 주이니라."(79 : 34)

"나는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느니라."(2 : 258)

"우리보다 힘이 강한 자 누구냐."(15 : 41)

www.pathagar.com

또 어떤 곳에서는 범인들의 무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우상이나 신전의 형태로 사이비 신들을 만들어 놓고는 이들 우상이나 신전의 배후에 대신 들어서서 인류를 미혹하여 자기들의 신권을 묵묵히 받아 들이게 하였읍니다.

그러므로 이교(異敎)와 다신교와 우상숭배를 대적하라는 이슬람의 부름과 한분이신 하나님께만 숭배와 헌신을 하라는 초대—이 모든 것은 정부의 이익과, 그 정부의 권위를 지지하거나 그로부터 지지를 끌어내는 계층의 이익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읍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한 예언자(그분에게 평화가 있기를)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읍니다. :

"오 사람들아, 알라께 복종하라 ; 하나님외에는 그 누구도 너희의 신이 아니니라."(11 : 84)

당시의 정부는 서둘러 전력을 다해 그분의 길을 막았으며, 타락한 착취 계층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그분을 적대했읍니다. 그 예언자의 부름이 결코 형이상학적 명제가 아니라 사회 혁명의 헌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지배·착취 계층은 예언자(그분에게 평화가 있기를)의 제일성(第一聲)에서 정치적 격변의 위협 냄새를 맡았읍니다.

이슬람 혁명 강령의 특징

하나님의 모든 예언자들(그분들께 평화가 있기를)이 예외없이 혁명지도자들이었으며 뛰어난 예언자인 무함맏(그분에게 평화가 있기를)께서 가장 위대한 혁명 지도자였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들 하나님을 숭배하는 혁명가들과 일반 세속 혁명가들 사이에 경계선을 그을 수 있는 점은 이들 세속 혁명가들은 아무리 그 의도가 정직하더라도 결코 올바른 수준의 정의와 중용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www.pathagar.com

혁명가들은 피압제 계층으로부터 나오거나 피압제자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일어섭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들 계층의 관점에서만 만사를 봅니다. 그들의 견해가 결코 편파적이 아닐 수 없으며 순전히 인간적임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반대로, 그들의 견해는 한 계층에 유리하게 심히 치우쳐 있으며 타 계층에 대해 증오와 원한을 품고 있읍니다. 그들은 폭정의 치유법을 처방하지만 실상은 그 자체가 폭정적이고 복수심에 불타고 있읍니다. 그들이 복수감과 질투심과 악의를 떨쳐 버리고 모든 사람들의 복지를 보장하는 공정하고 균형잡힌 사회 질서를 계획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와는 현저히 대조적으로 예언자들(그분들께 평화가 있기를)은 아무리 심한 박해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이 적대자들의 손에 어떤 고통을 당해야 했던지간에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이 혁명 운동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버려두지 않았읍니다. 그분들은 주님의 직접 인도 아래 움직였읍니다. 주님은 모든 인간적 정욕을 초월하시고 어떤 인간 집단이나 계층과도 특별한 관련이 없으시며 어느 타 계층의 사람들에게도 원한이나 증오감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직접 인도아래 예언자들(그분들께 평화가 있기를)은 공공복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하여 만사를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보았읍니다. 그분들은 각인이 자기 권리의 한계내에 있는 데 만족을 느끼고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신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향유하고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회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체제를 고안하려고 노력 하였읍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언자들(그분들께 평화가 있기를)에 의해 시작된 혁명운동은 결코 계급 투쟁의 성격을 갖지 않았읍니다. 그분들이 사회 재건을 이룩한 것은 한 계층의 타 계층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기 향상과 물질적·정신적 우월성 획득의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정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였읍니다.

www.pathagar.com

이 짧은 글에서 이슬람이 그린 사회 질서를 상세히 논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곧 생기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주제의 한계내에서 본인이 설명하고자 하는 점은 다만 이것입니다 : 이슬람은 종교 교리 혹은 몇가지 숭배 형식의 복합적 명칭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압제적이고 악한 체제(제도)의 말살을 기도하며 인류의 복지를 위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그 자신의 개혁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포괄적인 체제입니다. 이슬람은 어느 한 민족이나 사람들의 집단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 대하여 파괴와 재건, 혁명과 개혁의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부름을 말합니다. 이슬람은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압제하고 착취하는 계층 모두를 부릅니다. 왕이나 귀족들이라 하더라도 이슬람을 믿는다고 증언하고 주께서 자신들에게 요구하신 한계내에 머물겠다고 서약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이슬람은 그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체제를 받아들인다면 평화와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들에게 다짐합니다. 이 체제는 어느 누구에게도 증오심을 품지 않습니다. 우리가 증오하는 것은 폭정과 싸움과 부도덕이며 천부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자연법에 의해 자기에게 할당되지 아니한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데올로기를 믿는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은 이슬람 당원이 되며 자기가 속한 계급·인종·민족 혹은 나라의 차별없이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향유합니다. 이렇게 하여 꾸란이 '히즈브 알라'라는 칭호를 붙이며, 일명 '이슬람 당 혹은 이슬람 움마'로 알려진 국제 혁명당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 당은 창설되자 마자 그것이 존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합니다. 이 당이 존재하는 근본 이유는 비이슬람 체제의 헤게모니를 파괴하고 그대신 꾸란이 언급하고 있는 균형잡히고 인도적인 법으로 생활을 규율하는 사회·문화 질서의 규칙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꾸란에 포괄적인 용어인 '하나님의 말씀'이

www.pathagar.com

들어 있읍니다. 이 당이 정부를 변혁하여 이슬람 정부 체제를 수립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당의 존재 기반이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당은 전술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일을 제외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 꾸란은 이 당을 창설하는 오직 하나의 목적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

"너희는 인류를 위해 일으켜진 최선의 백성인 즉 선을 권하고 악을 피하며 알라를 믿을지니라."(3 : 110)

종교를 전파하는 이 사람들은 단순한 전도사나 선교사가 아니라(사람들에게 증인이 되기 위한)하나님의 공복이며, 무력의 힘으로 세상에서 압제·해악·싸움·부도덕·횡포 그리고 불법 부당한 착취를 일소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반신 반인(半神 半人)과 사이비 신들이 신이라는 신화를 타파하고 악대신에 선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

(1)"그리고 박해가 없어지고 알라에 대한 신앙이 공언될 때까지 저들과 싸우라."(2 : 193)

(2)"너희가(받은 명을)행하지 아니하면 땅에는 해악과 엄청난 혼란이 있으리라."(8 : 73)

(3)"그분은 인도와 진리의 종교와 함께 당신의 사도를 보내시어 다신교도들이 분낸다 하더라도 저가 그 종교로 하여금 모든 종교위에 뛰어나게 하도록 하시느니라."(9 : 33)

그러므로 이 당은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읍니다. 왜냐하면 정부 권력이 악한 자들에게서 박탈되어 개혁자들의 손에 이양될 때까지, 악한 체제가 뿌리를 내려 악한 정부의 비호 아래 번창하며 경건한 문화 질서가 결코 확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를 개혁

www.pathagar.com

하기는 커녕 그 당 자체가 이방 국가 체제 아래에서 자신의 이상에 따라 행동하는 것조차 불가능 합니다. 그 자신의 이데올로기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믿지않는 당은 자기와 다른 체제의 지배 아래에서 그 자신의 교훈에 따라 살 수 없읍니다.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은 영국이나 미국에 있는 동안은 공산주의 원칙에 따라 자기 생활을 규율할 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국가체제가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그를 내리 눌러, 그가 지배 권력의 보복을 피하는 것이 전연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무슬림이 비이슬람 체제의 정부 권력 아래에서 이슬람의 생활 양식을 지키려고 작정해도 거기에 성공할 수 없읍니다. 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규칙,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세금, 나쁘다고 믿는 모든 문제, 그가 보기에 악한 문명과 생활 양식, 그에게 치명적으로 보이는 교육제도—이 모든 것들이 그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냉혹하게 밀려와서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나 집단은 자기 신념이 선천적인 요구에 의해 적대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뿌리뽑고 자기 신념의 프로그램과 정책을 따르는 정부를 수립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적대적인 강령을 표방하는 정부 권력 아래에서는 그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들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를 회피한다면 그것은 분명 그 자신들이 자기의 신념에 있어 위선자요 거짓말장이임을 뜻합니다.

"알라께서 그대를 용서하기를(오 무함만이여). 어찌하여 그대는 진실한 자들과 거짓말장이들이 그대에게 분명해질 때까지 저들이(뒤에 남도록)허락하였느뇨? 알라와 마지막 날을 믿는 자들은 자기 재산과 생명을 바쳐 싸우는 일을(면케 해 달라는) 허락을 구하지 않으리니 알라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아시느니라. 오직 알라와 마지막 날을 믿지 않으며 그 마음이 의심으로 가득하며, 의심하여 흔들리는 자들만이 그대에게(면케 해달라는) 허락을 구하리라."(9 : 43—45)

www.pathagar.com

꾸란은 이 말씀가운데서, 어느 당이 자신의 신념에 진정으로 헌신하느냐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試金石)은 그 당이 재산과 생명의 모든 자원을 바쳐 자신의 신념을 국가의 지배권력으로 장치하기 위해 투쟁하느냐의 여부라고 명백하고 분명하게 포고하였읍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국가의 적대적인 강령의 권위를 묵인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신념이 거짓이라는 실증적 증거이며, 여러분의 이슬람 강령에 대한 명목적 헌신 역시 마침내 없어져 버리고 말리라는 것은 이의 당연한 귀결이요 또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여러분은 이 지배에 대한 여러분의 경멸이 좋아 함으로 바뀔 때까지 그와 더불어 살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적대 이데올로기의 국가 지배를 확립·유지하기 위한 지주(支柱)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슬람 이데올로기를 대신하여 비이슬람적 강령을 장치·옹호하기 위한 투쟁에 여러분의 재산과 생명을 바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원이 이슬람 이데올로기를 국가의 지배 권력으로 확립하는 것을 저지하는 데 이용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르면 이슬람에 헌신한다는 위선적인 공언과 가증스러운 거짓 그리고 기만적인 칭호를 제외하면 여러분은 이교도들과 차이가 없게 될 것입니다. 성 예언자(그분께 알라의 평화가 있기를)께서는 전승에서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설명하셨읍니다:

"내 생명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너희는 선을 시행하고 악을 억제하며 행악자의 손을 저지하고 그것을 강제로 돌이켜 의를 행케 하여야 하리라. 그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연법의 필연적인 결과가 이같이 나타나리니 곧 행악자의 마음의 의도가 너희의 마음에 영향을 미쳐 너희 또한 저들과 마찬가지로 저주를 받으리라."

www.pathagar.com

세계 혁명

틀림없이 이제까지의 논의로부터 이슬람의 '지하드'의 목적이 비이슬람 체제의 지배를 제거하고 그대신 이슬람 국가 지배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이슬람은 이 혁명을 한 국가나 몇몇 나라에 국한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의 목표는 세계 혁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자신들이 속한 나라의 국가 체제에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이슬람 당원의 의무이지만, 그들의 궁극적 목적은 다름아닌 세계 혁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국가 이익을 옹호하는 대신 인류 전체의 복지라는 원칙을 옹호하는 혁명 이데올로기는 그 목표와 목적을 한 나라나 민족에 국한 시킬 수 없읍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강령의 목표가 세계 혁명일 수 밖에 없음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진리는 지리적 경계내에 한정될 수 없읍니다. 진리는 강이나 산의 이 편에서 옳은 것은 무엇이나 강이나 산의 저편에서도 옳을 것을 요구합니다. 인류의 어느 일부도 진리를 박탈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류가 억압과 차별과 착취를 당하고 있는 곳이면 어디든 구원하러 가는 것이 의로운 자들의 의무입니다. 성 꾸란은 같은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읍니다 :

> "너희가 어쩐 일이뇨?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길에서 싸워, 의지할 데 없음을 알고 사람들이 억압하는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을 원조하지 아니하느뇨? 저들은 이같이 기도하느니라 : 오 하나님, 폭군이 다스리는 이 처소로 부터 저희를 해방시키소서."(4 : 75)

더우기 민족적 혹은 국가 지향적인 인류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관계와 교섭은 세계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국가도 인근 국가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데올로기가 효력을 발할 때까지는 그 이데올로기를

www.pathagar.com

완전하게 시행할 수 없읍니다. 한 지역에 이슬람 정부 체제를 수립하는 데만 만족하지 않고 자원이 지탱할 수 있는 한, 이슬람 체제의 지배를 도처에 확신시키는 일이 인류의 공공 복지와 자기 방어를 이유로 무슬림 당에게 불가피합니다. 무슬림당은 불가피하게 참다운 구원과 진정한 복지를 줄 희망이 있는 신앙을 받아 들이라고 타 국가의 시민들을 초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무슬림당이 충분한 자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비이슬람 정부를 제거하고 그대신에 이슬람 정부 권력을 확립하게 될 것입니다. 성 예언자(그분에게 평화가 있기를)와 그분의 후계자인 뛰어난 칼리프(알라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기를)들이 바로 같은 정책을 썼읍니다. 무슬림당이 창설된 아라비아는 이슬람의 지배 아래 복속되어 들어온 최초의 나라였읍니다. 후에 성예언자(그분께 알라의 평화가 있기를)께서는 다른 주변 국가들에게 이슬람 신앙과 이대올로기를 받아 들이라는 초대장을 보내셨읍니다. 그 나라들의 지배계층이 참다운 신앙을 택하라는 이러한 초대의 수락을 거절하자 예언자께서는 그들에 대해 군사 행동을 취할 결의를 하였읍니다. 연속된 군사 행동중 최초의 것이 따부크 전투였읍니다. 예언자(그분께 알라의 평화가 있기를)께서 하늘의 집으로 떠나신 후 아부 바크르(알라께서 그를 기뻐하시를)가 무슬림당의 통솔 책임을 맡자 비이슬람 정부의 지배 아래 있던 로마와 이란을 공략하기 시작하였읍니다. 그뒤에 우마르(알라께서 그를 기뻐하시를)가 그 전쟁을 승리로 끝맺었읍니다. 이집트, 시리아, 로마 그리고 이란의 시민들은 이들 군사 행동을 아랍 민족의 제국주의 정책의 증거로 간주하였읍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이 민족 역시 다른 민족을 제국주의의 굴레 아래 노예화시키는 과정에 착수했다고 믿었읍니다. 바로 이러한 오인때문에 그들은 가이사(Caesar)와 코스로(Khosros)의 기치 아래 진격하여 무슬림들과 전투를 벌였읍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슬림당의 혁명 이데올로기를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무슬림 군대가 침략적인 민족

www.pathagar.com

주의의 전사가 아니였으며, 민족주의적 목적이 없이 다만 정의로운 체제를 만들 목적으로 왔으며, 신권(神權)을 쥐고 포악한 가이사와 왕들의 비호아래 자기 신민(臣民)들을 짓 밟고 있던 압제 계층을 멸절시키는 데 그 진정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그들에게 점점 분명해 졌을 때 그 짓밟힌 사람들의 도덕적 공감은 이슬람당을 향하였읍니다. 그들은 자기 군주의 깃발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기 시작하였으며 강제 징집을 당하여 억지로 무슬림들과 싸우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싸울 마음이 없었읍니다. 이것이 무슬림들이 초기에 거둔 놀라운 승리의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바로 이때문에, 그들은 자기 나라에 이슬람 정부가 수립된 후에 이슬람 사회체제가 운영되는 것을 보자 기꺼이 이 국제적인 당에 가입하여 그 이데올로기의 옹호자가 되었고 그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 떠났읍니다.

'공격'과 '방어'는 부적합한 말이다.

전술한 설명을 신중하게 고려해 보면 전쟁의 성격을 구별하는 '공격'과 '방어'라는 두 용어가 이슬람의 '지하드'에 전혀 적용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 두 용어는 민족과 나라 사이의 전쟁의 맥락안에서만 관련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 용어로서의 '공격'과 '방어'라는 말은 나라나 민족에 대하여서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국제적인 당이 세계적인 신념과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일어나 인간으로서의 모든 민족에게 이러한 신념과 이데올로기를 받아 들이라고 초대하고 여러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평등한 당원으로서 그 품에 안으며, 적대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벗기고 그 대신 그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정부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만 싸울 경우에 '공격'과 '방어'와 같은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들 전문 용어의 고려를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이슬람의 '지하드'를 공격과 방어로 가르는 것은 용납할 수 없읍니다. 이슬

www.pathagar.com

람의 '지하드'는 공격인 동시에 방어입니다. 그것이 공격임은 무슬림당이 적대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공격하기 때문이며 그것이 방어임은 무슬림당이 이슬람의 제원칙을 시공(時空)의 힘속에 붙잡아 두기 위하여 부득이 국가 권력을 장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당으로서 그것은 방어할 본부가 없었읍니다. 그것은 자기가 보호해야 할 일정한 원칙을 옹호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당은 반대당의 본부를 공격하지 않고 반대자의 원칙을 공격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격의 목적은 반대자가 자기 원칙을 버리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칙을 떠 받치는 정부를 철폐하는 것입니다.

www.pathagar.com

이슬람 정부 보호하의 짐니스(不信者들)의 지위

여기에서는 또한 다른 신앙과 이데올로기의 숭배자들의 나라에 이슬람 정부가 수립되었을 경우에 그들의 지위에 관하여 생기는 물음에 답합니다. 이슬람의 '지하드'는 사람들의 신앙·이데올로기·숭배의식·사회관습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완전한 종교적 믿음의 자유를 허용하며 사람들이 자기 교리에 따라 행동하게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이슬람의 '지하드'는 이슬람에 비추어 악한 체제에 따라 국사(國事)를 운영할 권리를 그들에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의 '지하드'는 또한 이슬람적 견지에서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관습을 이슬람 정부하에서 존속시킬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의 움마는 국가 권력을 잡자 마자 이자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모두 금할 것입니다. 이슬람 법에 의해 금지된 영업과 금융 거래를 억제하고 매음과 기타 악습의 소굴을 모두 단호하게 폐쇄할 것입니다. 비무슬림 여자들이 의무적으로 이슬람 법이 요구하는 정숙한 복장의 최소기준을 지키게 하고 무지의 시대처럼 자기 아름다움을 과시하며 돌아 다니는 것을 금할 것입니다. 무슬림당은 영화 검열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슬람 정부는 공공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자기 방어를 이유로 비무슬림 교리에서는 허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슬람적 견지에서는 도덕의 섬유를 부식시키는 치명적 문화 활동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슬람에 대해 관대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퍼붓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세상에 이슬람이 해온 것만큼 다른 믿음의 숭배자들에게 관용을 보여온 교리가 없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다른 신앙의

www.pathagar.com

주창자들이 참고 생활할 수 없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이주해 버릴 정도로 억압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슬람은 평화와 평온을 조건으로 하여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충분한 자기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며, 세상이 지금까지 유례를 보이지 못한 아량을 그들에게 보이고 있읍니다.

www.pathagar.com

제국주의라는 비난

여기서 본인은 이슬람이 '지하드'로 간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싸움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싸움뿐임을 되풀이 해야겠읍니다. 이 싸움의 끝에 이슬람 정부가 수립되면 무슬림들이 옛 전제 군주가 사람들에게 휘두른 전제 권력을 잡는 것이 절대 금지됩니다. 무슬림은 일개인의 지배를 확립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 피조물로 만들어 버리며 사람들이 애써 번 재산을 착취하여 지상에 자기만을 위한 낙원을 건설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으며 무슬림으로서의 그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악마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이런 정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의 '지하드'는 즐거움이란 없는 무미 건조한 노동입니다. 그것은 다만 생명과 재산과 육욕의 희생일 뿐입니다. 이 '지하드'가 승리의 관을 쓰고 이슬람 정부가 수립되면, 정직하고 진실한 무슬림 국가 원수의 책임은 밤에 자고 낮에 쉬는 게 허락되지 않을 정도로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 권력과 권위가 요구할 수 있는 쾌락을 누릴 권리가 그에게는 없읍니다. 세상에서는 보통 이런 쾌락을 얻기 위하여 정부를 장악하려는 노력이 경주 됩니다. 무슬림 통치자는 보통 사람과 다르거나 그보다 특권이 많은 우월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존귀의 보좌에 앉을 수 없으며 그 누구에게도 자기 앞에 부복하라고 명령할 수 없읍니다. 아무리 사소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이슬람 법의 허가 없이는 할 수 없읍니다. 그 공동체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법적 청구를 못하게 자기 친척이나 친구 혹은 자신을 비호할 권한이 없읍니다. 가장 하찮은 물건 혹은 한치의 땅 조차도 이유 없이 착취할 수 없읍니다. 단돈

www.pathagar.com

반푼이라 하더라도 보통 수준의 재산을 가진 무슬림이 생활해 가는 데 필요한 것보다 많으면 국고로부터 이를 월급으로 받을 수 없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는 국가 원수가 화려한 궁전에 거처 할 수는 없으며, 화려·찬란하게 살수도, 쾌락과 환락의 수단을 손에 넣을 수도 없읍니다. 그는 항상 언제나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엄한 추궁을 받으리라는 두려움에 사로 잡혀 있읍니다. 그리고 단돈 한푼이라도 부당 이득을 얻었거나, 아무리 작은 땅 덩어리라 하더라도 이를 누구에게서 강탈하였거나, 아무리 조금이라도 육욕앞에 굴복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는 가장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형벌을 선고받을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을 얻고 싶어하나, 이슬람 법하에서 국가 책임의 짐을 기꺼이 짊어지는 사람보다 더 큰 바보를 세상은 보지 못하였읍니다. 조그만 상점 주인의 세속 지위가 이슬람 국가의 통치자보다 훨씬 납니다. 그는 낮에는 칼리프보다 더 많이 벌고 밤에는 푹 잠을 잡니다. 칼리프는 그보다 많이 벌지도 밤에 곤히 자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이슬람 정부 체제와 비이슬람 정부 체제의 주요 차이입니다. 비이슬람 국가에서는, 지배 계층이 신권 통치자가 되고 국가의 재산과 자원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세력을 부식(扶植)합니다. 이와는 현저히 대조적으로 이슬람 국가의 지배 계층은 사사로운 동기를 생각하지 않고 봉사하며 보통 사람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보다 더 큰 개인적 편익을 자신을 위해 획득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정부하의 문관 간부가 받은 봉급률을 이슬람 국가와 동시대의 근대 제국주의 정부나 제국주의 열강하에서 문관이 봉급으로 받은 소득과 비교해 보십시요. 그러면 이슬람의 세계 정복과 제국주의의 세계 지배는 그 정신과 성격에 있어 헤아릴 수 없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인 쿠라싼·이라크·시리아·이집트의 통치자들은 오늘날의 하급 검사관(Inspector)이 받는 것보다 더 적은 액수의 돈을 봉급으로

www.pathagar.com

받았읍니다. 제 일대 칼리프인 아부 바크르 씨디끼(알라께서 그를 기뻐하시기를)는 월 100리얄의 봉급을 받고 그처럼 광대한 제국을 다스렸읍니다. 우마르(알라께서 그를 기뻐하시기를)의 봉급은 이슬람 국가의 국고가 알려진 세계에 있던 양제국의 부로 가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월 150리얄을 넘지 않았읍니다. 표면상으로는 제국주의가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슬람 또한 나라들을 정복하지만 양자 사이에는 하늘과 땅사이 만큼이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읍니다. 이런 시귀가 있읍니다 :

'둘다 허공을 날지만 독수리의 세계는 까마귀의 세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여러분이 많이 들어온 말인 '지하드'의 진정한 의의인 것입니다. 이제 만약 여러분이 본인에게 당신이 우리 앞에서 그 이데올로기를 설명한 그런 이슬람과 무슬림당과 '지하드'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오늘날 세계의 무슬림들 가운데서 그 자취를 발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본인은 이런 물음을 본인에게 들이 대지 말고 무슬림들의 주의를 참된 사명으로부터 부적과 주문과 미신적 의식과 의무 이상의 제물과 같은 마법의 약으로 쏠리게 한 자들에게 그것을 물어보라고 여러분에게 간청할 것입니다. 구원과 개혁과 목적 달성의 지름길을 처방하여 고작 염주를 돌리면서 기도하거나 무덤에 누워자는 영혼을 달래는 데 필요한 정도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을수 있게한 자들에게 그것을 물어 보십시요. 이슬람의 교리와 이데올로기의 목적을 감추어 어두운 구석에 버리고, 성스러운 신앙의 가장 하찮은 문제나 묘지 방문 혹은 기타 사소한 쟁점에 대한 논쟁에 무슬림들이정신을 팔게 한 자들에게 그것을 물어 보십시요. 무슬림 민족은 그 결과로 모든 진정한 동질감과 자신들이 창조된 목적과 이슬람의 참다운 성격을 잃고 말았읍니다. 만일 저들이 만족스럽게 답변하지 못한다면 꾸란과, 성 예언자(그분께 알라의

www.pathagar.com

평화가 있기를)의 성직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꾸란의 명령과 성 예언자(그분께 알라의 평화가 있기를)의 인도로 부터 자기들이 받은 은혜는 이 구석 저구석에서 꾸란 낭송 대회를 개최하고 예언자(그분께 알라의 평화가 있기를)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거나 이따금 하나님의 성귀가 아름다워서 그분을 찬미하는 게 고작이라고 믿는 부자와 관리와 정부 당국(하나님께서 저들과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에 이런 물음을 던져 보십시요.

이 신사 양반들은 현실 정체(政體)에 이슬람 법을 시행하고 이슬람의 개혁을 도입하는 일에 대해 자신들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신사 양반들의 영혼은 제한을 받아 들이고, 이슬람이 부과하는 의무의 짐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별로 힘들이지 않고 구원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www.pathagar.com

전주 이슬람센타에서는
이슬람 혹은 아랍문화를 알고자 하시는 분과 관심이 계시는
분을 위하여 문의전화와 방문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주 소 520
전주우체국 사서함 75호
전 화 (0652)76-1483

전 주 이 슬 람 센 타

이슬람의 지하드
-JIHAD IN ISLAM-

1986년 3월 10일 초판 인쇄
1986년 3월 15일 초판 발행

저 자 Sayyid Abul Ala Maudoodi
발행처 전 주 이 슬 람 센 타
인 쇄 한 국 컴 퓨 터 인 쇄 (주)

www.pathagar.com

이슬람의 지하드

JIHĀD IN ISLAM

사이드 아불 아알라 마우두디 著

전주 이슬람 센타
Chon-Ju Islam Center